

리더십 메커니즘: 거울뉴런(Mirror Neuron)

*“리더들의 생각과 행동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Mirroring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성원 개개인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곧 내적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의 팀워크와 성과로 직결된다.”*

최근 뇌 영상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행동탐구영역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신경심리 (Neuro-Psychology)는 뇌를 통하여 인간의 심리와 행동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최신의 학문으로서 그간 미지에 쌓여있던 인간의 행동특성을 하나씩 규명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 ‘거울뉴런’의 발견은 신경학적으로 인간의 모방과 적응기제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거울뉴런은 15년 전 이탈리아 지아코모 리졸라티 교수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그는 어느 날 대학원생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실험실에 들어왔을 때 이를 지켜보던 원숭이의 뇌에서 갑자기 이상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분석 결과 그 반응은 원숭이 자신이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을 때 뇌 반응과 같았다. 그 후 바나나를 포크로 집는 것을 관찰하는 반응에서도 원숭이 자신이 손으로 집을 때와 같은 뉴런이 활동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처럼 거울뉴런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말한다.

거울뉴런은 특히,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들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생쥐도 거울 뉴런을 가지고 있는데 쥐똥에 걸린 동료의 고통을 보고 같은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면, 그 쥐는 쥐똥 근처에 가지 않게 되므로 생존에 유리하게 된다. 위 실험연구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의미와 목적성’이 주어질 때 뉴런의 활성화 정도가 훨씬 강해진다는 것이다.

거울뉴런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모방)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생존력을 증대시키는 결정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해왔음에 분명하다. 일례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끊임없이 Mirroring하면서 사회적응과 생존을 위한 태도를 자동적으로 형성하게 된다.

조직의 관점에서 반추해볼 때 리더들의 생각과 행동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이러한 Mirroring 메커니즘을 통해서 구성원 개개인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곧 내적 상호작용을 통해 조직의 팀워크와 성과로 직결되며, 각 구성원들의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할 것이다.

리더는 곧 조직의 ‘거울’이다.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Mission을 제공함과 동시에 Role Model로서 숭선수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상에 변화가 생기길 바라다면 스스로 그 변화가 되라” - 마하트마 간디



James Roh

Written by C.E.O 노상충 (James Roh)